

다니엘 맥길버리 선교사(1)

다니엘 맥길버리(Daniel McGilvary)는 미국인으로서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50년 이상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L. W. Curtis는 맥길버리 선교사를 평하면서,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인도 선교)도 애도니럼 저드슨(Adoniram Judson, 미얀마 선교)도 신앙의 힘과 목적추구의 열정에 있어서 그를 능가하지 않았다. 존 깁슨 패이튼(John Gibson Paton, 오세아니아 선교)도 제임스 칼머스(James Chalmers, 남태평양 선교)도 그 업적의 놀라운 성과에 있어서 그보다 탁월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¹

맥길버리 선교사는 북부 태국과 그 인접해 있는 미얀마 동북부, 중국 운남성, 라오스 북부 등에서 타이(Thai)족과 라오(Lao)족을 포함한 다양한 타이(Tai)족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사역을 펼쳤다. 그가 1911년 사망하기 전 완성한 자서전인 *A Half Century among the Siamese and the Lao: An Autobiography* (Bangkok: White Lotus, 2002)는 맥길버리 선교사의 선교 활동과 함께 그가 경험한 태국 북부 및 라오스 지역의 19세기 말~20세기 초 사람들의 삶이 그려져 있다.

이 글은 이 자서전의 주요 내용을 발췌, 번역, 정리한 것이다. 맥길버리 선교사의 이 책은 전 근대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에 있던 태국 북부 및 라오스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측면들을 보여주며 이 지역에서의 선교를 위한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정의 배경

다니엘 맥길버리는 182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의 무어(Moore)에서 일곱 자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맬컴(Malcom)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1789년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다. 다니엘의 어머니 역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니엘을 낳은 그 해 말에 사망했다. 다니엘의 아버지는 버팔로(Buffalo)의 한 장로교 교회의 장로였다. 그가 1841년 사망 후 장로직은 다니엘의 형 가운데 한 명이 승계했다. 다른 형들 세 명도 다른 교회들에서 장로가 되었다.

부친은 가정예배를 중시하여 종종 동트기 전에 예배를 드렸다. 식구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성경이었다. 당시 미국에 정착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학교를 교회와 더불어 운영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특히 가을추수가 끝나면 특별 학교가 개설되었다. 자녀들은 학비를 내고 입학하여 선생님들과 더불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공부했다. 밤에는 종종 교리문답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어릴 때 이렇게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니엘에게 평생 따라다녔다.

식구들은 모두 주일에는 집에서 약 6.5km 떨어진 버팔로의 장로교 교회에 가서 가족지정석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였다. 일년 중 가장 큰 행사는 가을 성찬식 즈음하여 개최되는 야외 부흥회였다. 집회를 위해 사람들이 25km, 30km 심지어 60km 이상 먼 곳에서 오기도 했다. 교회에서 가족지정석이 있는 집은 텐트를 치고 부흥회 내내 교회에서 살았다.

예배는 금요일 시작되어 월요일 마쳤다. 집회의 순서는 해 뜰 때 기도모임, 아침 금식, 9시 기도, 10시 설교, 짧은 휴식 후 설교 등으로 이어졌다. 설교는 1시간 이상 되어야 제대로 된 설교로 쳤다. 특히 부흥회 주일 설교 때는 교회 안에 자리가 부족하여 야외에서 실시되었다. 설교 후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며 교회로 올라가 성찬식을 가졌다.

다니엘은 만13세 때 아직 농장에서 정식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또 집에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도 없었다. 이때 그의 인생의 전체 행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사촌 중에는 로드릭 맥킨토시(Roderick McIntosh)라는 신체장애자가 있었다. 재봉사로 생계를 이어

¹ Wells, Kenneth E. *History of Protestant Work in Thailand 1828-1958*. Bangkok: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1958: p. 49.

가는 그는 약 34km 떨어져 있는 피츠보로(Pittsboro)에 살고 있었다. 그의 부친은 맥길버리 집의 이웃으로, 서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어느 날 로드릭이 부친을 방문하러 왔다가 맥길버리 집에 들렀다. 그는 다니엘에게 “여기를 떠나 나와 함께 사는 건 어때? 너에게 일을 가르쳐줄게”라고 말했고, 다니엘은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 이 만남은 결국 그를 태국으로 그리고 타이족 및 라오족 선교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

태국 선교의 결심

1841년 8월 31일 다니엘은 정든 집과 작별하고 피츠보로로 떠났다. 피츠보로는 더욱 도시화되어 있었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그 곳에는 장로교 교회가 없어 다니엘은 감리교 교회에 나갔다. 그는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성경퀴즈와 주기도문 및 사도신경 퀴즈에서 우승하여 모든 상을 휩쓸었다. 평일에는 양복점의 일을 도우면서 재봉을 배우는 한편 한가한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했다.

계절마다 열리는 한 부흥집회에서 회개할 사람은 강단으로 올라오라는 목사의 말씀에 다니엘은 한 친구와 함께 매일 강단에 올라가 회개와 신앙고백을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묵상을 하는 동안 그는 예수를 만나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다니엘은 그 후 교회의 목사 견습생 과정을 거쳐 피츠보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마침내 1845년 가을에 빙햄(Bingham) 신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했다. 이 신학교는 당시 남부의 저명한 가문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니엘은 학비와 기숙사비 및 생활비를 학교교장이 책임지는 혜택을 받았다. 모든 비용은 졸업 후 선생이 되어 갚기로 했다.

다니엘은 1849년 5월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그는 피츠보로에 새로 설립된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850년에는 피츠보로 신학교의 한 관리인이 되어 거기서 4년간 근무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목회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마침 피츠보로에 새로 구성된 장로교 총회의 오렌지(Orange) 노회와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노회는 다니엘에게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를 위해 그 신학교에 장학금을 기증했다. 마침내 1853년 가을 다니엘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에서 약 2.5km 떨어진 한 목사의 집에 기숙하면서 매일 신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수년 간 걸어 다니는 그의 생활은 그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것은 나중에 태국 북부 지역에서 걷기를 위한 훌륭한 훈련이 되었다.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에는 선교사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신학생들 중에는 해외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1855년 가을학기에 당시 태국에서 활동하던 하우스(S.R. House) 선교사는 한 강연에서 당시 서양인들에게 시암(Siam)으로 알려져 있던 태국과 그 왕국의 몽곳(Mongkut) 왕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하우스 선교사가 시암에 선교사로 자원할 신학생을 찾자, 다니엘 맥길버리와 조너선 윌슨(Jonathan Wilson)이 그에 응했다. 이 두 신학생은 하우스 박사에게 자신들이 선교사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주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이끄시면 자신들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은 1856년에 신학교 과정이 끝나기 전에 그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로부터 목사 초빙을 받았다. 그는 목사직을 1년만 맡겠다는 조건으로 초빙을 수락했다. 그의 목회 사역은 교인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교인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위임목사 즉 영구직 목사로 초빙했다. 계약한 1년이 가까워 오자 그가 이전에 약속한 태국 선교에 대한 생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했다.

다니엘 맥길버리 목사는 태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당시 힘을 잃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1857년 8월 1일 토요일 하루 금식을 하며 숲 속에 들어와 기도했다. 마침내 그는 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이튿날 주일 그는 자신의 결심을 교회의 수석장로에게 이야기했다. 당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 후, 마침내 다니엘은 태국 선교사로 파송되기로 결정되었다. 1857년 12월 11

일 그는 그가 속한 오렌지 노회의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태국에서의 선교 사역

다니엘 맥길버리는 우선 뉴욕의 선교본부에 갔다. 거기서 그는 조너선 윌슨을 만났다. 그 역시 태국으로 가려고 뉴욕을 방문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1858년 3월 11일 싱가포르로 가는 배를 탔다. 싱가포르까지는 88일 걸렸다. 두 선교사는 6월 18일 태국의 짜오프라야강 하구에 도착했고 이틀 뒤 마침내 방콕에 안착했다. 뉴욕에서 방콕까지 100일만에 온 것이었다. 그들이 6월 20일 새벽 상륙한 곳은 방콕의 삼레(Samre) 선교기지였다.

당시 방콕에는 의사인 하우스 박사, 매툰(Mattoon), 댄 비치 브래들리(Dan Beach Bradley), 스미스(S.J. Smith), 텔포드(R. Telford) 등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다. 다니엘 맥길버리는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한 태국인 선생을 찾아 그에게서 태국어 기초부터 배웠다. 이와 동시에 그는 방콕의 미션스쿨에서 태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방콕에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태국의 국왕인 몽꿋 왕을 알현할 기회를 두 번 가졌다. 한 번은 국왕의 생일 축하 연에 외국인들이 초청되었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에서였다.

다니엘은 1859년 핏차부리(Phetchaburi)로 여행을 갔다. 핏차부리는 방콕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는 주요 도시였다. 그 여행에 브래들리 선교사의 아들인 코넬리어스(Cornelius)가 동행했다. 당시 핏차부리에는 태국 조정의 실세인 추앙 분낙(Chuang Bunnak)의 동생인 투암(Thuam) 분낙이 부수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수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1857년 태국 정부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영국에 파견된 적이 있었다.

다니엘은 부수령의 집을 방문했다. 저녁식사에서 부수령은 다니엘에게 핏차부리에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맥길버리 선교사가 핏차부리에 오면 집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기독교 종교를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수령은 그 다음날 맥길버리 선교사 일행의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같은 제안을 다시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방콕의 선교기지는 맥길버리 선교사가 핏차부리에 혼자 가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실험적 차원에서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또 방콕에서 30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철수할 수 있다고 보아 맥길버리 선교사의 핏차부리 행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방콕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핏차부리 행이 연기되었다. 콜레라로 윌슨 선교사의 부인과 어린 딸이 죽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1860년 9월 브래들리 선교사의 딸인 소피아 로이스(Sophia Royce)와 약혼했으며 그 해 12월 결혼했다. 맥길버리 선교사 부부는 1861년 6월 초 마침내 핏차부리로 이사했다. 당시 방콕에 갓 도착한 맥팔랜드(S.G. McFarland) 선교사 부부가 그들과 함께 파송되었다.

핏차부리의 부수령은 맥길버리 선교사가 온 것을 기뻐했다. 이전에 소피아 로이스의 어머니에게서 영어를 조금 배운 그는 틈날 때마다 소피아 로이스 선교사에게 영어를 계속 배웠다. 맥팔랜드 선교사는 학교교육 사역을 담당했으며, 맥길버리 선교사는 복음전파 사역에 집중했다. 두 선교사 가정은 매일 저녁식사 후 30분 동안 기도 시간을 가졌다. 각 가정에 고용된 두 명의 태국인 하인들이 기도의 제목이었다. 이들은 뒤에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핏차부리에서 맥길버리 선교사는 한 흥미로운 태국인을 만났다. 이 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일요일 저녁식사 후 어떤 남자가 10~12살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와서 “저는 제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이 애를 가르쳐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쾰(Kawn)이라는 이름의 농부로, 선교사들이 이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그가 전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은 서양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지만, 작고한 자신의 부친이 브래들리 선교사를 만나 그에게서 책 한 권을 받았다. 부친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1849년 콜

레라가 발생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끈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으며 마침내 3년 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는 마음이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은 그를 ‘콘 프라예수’ 즉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동안 브래들리 선교사와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성경의 여러 책들을 읽었다고 했다.

그날 오후 맥길버리 선교사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다. 예배가 끝날 즈음 그의 요청에 따라 끈은 삼위일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 예수와 붓다의 차이는 붓다는 열반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삶에 종지부를 찍었으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결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치앙마이 사역을 위한 준비

맥길버리 선교사는 태국 북부와 라오스에서 1860년대 후반부터 1910년경까지 4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펼쳤다. 그가 팻차부리에서 북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긴 것에는 1860년대 초 방콕과 팻차부리에서 겪은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경험의 하나는 그가 방콕에서 치앙마이의 왕과 그 가족을 만난 것이었다. 당시 치앙마이 왕국의 왕인 짜오 까월로롯(Chao Kawilorot)은 1860년 12월 초에 방콕에 왔다. 방콕에 종종 내려오는 그는 이미 브래들리 선교사와 교분이 있었다. 그의 방콕 숙소는 미국인 선교기지에서 멀지 않는 곳이었다. 그가 이번에 왔을 때 맥길버리 선교사의 결혼식이 막 끝났을 때였다.

다니엘은 그에게 결혼식 웨딩 케이크의 일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례로 그가 자신의 두 딸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맥길버리 선교사의 신혼집을 방문했다. 다니엘은 그들이 방콕에 체류하는 동안 종종 그들을 찾아가 치앙마이에서의 선교 사역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경험은 팻차부리에 사는 라오(Lao)인들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그곳에는 19세기 초 라오스와 코랏(Khorat) 등에서 잡혀온 라오인 포로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팻차부리 관청에 속한 노예로서 잡다한 공공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종종 저녁에 그들의 마을들을 방문하여 캠프파이어나 달빛 아래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도록 전했다. 거기서 그는 나이 앙(Nai Ang)이라는 첫 라오인 개종자를 얻었다. 라오인 마을들에서의 사역을 통해 그는 점차 라오인들의 본거지인 북부 지방의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라오 지역 선교를 위한 사전 탐방여행을 할 필요를 느꼈다. 방콕의 미국 선교사 장로교 노회는 1863년 11월 초 회의에서 여행을 승인했다. 이에 11월 10일 맥길버리 선교사는 윌슨 선교사와 함께 치앙마일로 출발했다.

그들은 우선 수로를 통해 보트를 타고 나콘사완(Nakhon Sawan)의 팍남포(Pak Nam Pho)를 경유하여 라헝(Raheng)에 도달했다. 라헝까지 19일 걸렸다. 라헝부터는 육로로 람팡(Lampang)과 람퐁(Lamphun)을 지나 치앙마이에 1864년 1월 17일 도착했다. 팻차부리에서 치앙마이까지 49일 걸린 셈이었다.

치앙마이 왕은 당시 장녀를 데리고 방콕에 내려가 있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방콕에서 만난 적이 있는 왕의 둘째 딸의 방문을 받았다. 그 후 많은 방문객들이 맥길버리 선교사 일행의 숙소를 찾아왔다. 맥길버리와 윌슨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치앙마이에서 10일을 체류했다. 방콕으로 내려가는 여정은 올라오는 여정보다 편했다. 치앙마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1월 30일 방콕에 도착했다. 팻차부리에 도착한 후 맥길버리 선교사는 선교사 두 명이 미국으로 가게 되어 북부 지방으로 선교 사역지를 옮기는 계획을 일단 연기해야 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그 사이 자식도 두 명이 생겼고 만39세의 나이로 중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도 부분적으로 다르고 생활환경도 다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기로 결심했다. 선교국의 재가는 이미 떨어져 있었다. 새로운 선교사들이 도착했고 휴가를 간 선교사들이 돌아와 핏차부리 선교기지의 인원도 보충되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당시 특별 용무로 내려와 있었던 치앙마이 왕을 만나기 위해 방콕에 갔다. 그는 우선 브래들리 선교사의 집에 가서 이 선배 베테랑 선교사이자 장인에게 자신의 치앙마이 선교사역 계획을 이야기했다. 방콕의 선교기지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은 모두 그의 계획에 동의와 협조를 약속했다.

맥길버리 선교사는 다음날 미국영사관에 가서 미국 영사의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영사는 태국 국왕에게 한 미국 선교사가 치앙마이에 선교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회신에서 태국 국왕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말하면서 방콕에 와 있는 치앙마이 왕에게 직접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치앙마이 왕이 동의하면 방콕 정부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맥길버리 선교사를 포함한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 영사는 치앙마이 왕을 찾아가 자신들의 용건을 이야기했다. 이미 전에도 미국 선교사들과 만나 기독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치앙마이 왕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땅에 선교기지를 세우고 살 집을 건축하고 서양 종교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치앙마이 왕의 동의서는 뒤에 태국 국왕의 서명이 첨가되어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맥길버리 선교사가 방콕에 돌아온 이후 1주일 안에 다 이루어졌다. (계속)